



명씨대중회 회장
명 제 태

명씨의 뿌리를 이어 미래를 열고,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명씨대중회를 만들어 갑시다!

제48차 정기총회

2026년 5월 5일(화) 오전 11시 · 파주 경모사

명씨대중회는 2026년 5월 5일(화) 오전 11시, 파주 경모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0여 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정기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직접 정성껏 준비한 황제탕과 음식을 함께 나누며 종친 간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종친들은 선조의 뜻을 기리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명씨 공동체의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화합과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명제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마치 자기 일처럼 함께해 준 임원과 전국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중회 홈페이지 개설과 대중보 재창간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종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다.”라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자족보를 임기 안에 구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젊은 종친들이 자신의 뿌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더욱 젊고 활기찬 명씨대중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총회는 전임 회장의 축사에 이어 대중회 임원 및 지방종친 회장 소개, 전자족보(인터넷족보) 등재 안내, 2025년도 사업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02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정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제7조에는 수석부회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제13조에는 재무이사 1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개정 회칙은 2026년 5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제26대 회장·감사 선출

총회 2부에서는 제26대 회장과 감사를 선출했다. 선거는 명순식 자문 위원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회장에는 현 회장인 명제태 회장이 연임됐고, 감사에는 명노경 감사가 다시 선출됐다.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된 명제태 회장은 수락 인사를 통해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주신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연임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처음 회장직을 맡았던 초심을 잃지 않은 채 대중회의 발전과 종친 간 화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명노경 감사 역시 “다시 감사의 소임을 맡겨주신 종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중회의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48차 정기총회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과 함께 명씨대중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참석한 종친들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더 발전된 명씨대중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명씨대중회 편집국>



명씨대종회, 중국 시조 탄생지 4박 5일 공식 방문

수주·수현·유림진 방문… 선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2026년 6월 10일~14일 4박5일 일정
한중 문화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다

1. 염제신농대전

대종회는 2026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명제태 대종회장, 명영철 사무총장, 명기주 부회장, 명현식 부회장, 명효남 이사, 명남식 이사, 명재택 이사 등 7명은 시조탄생지인 수이조우와 수현, 유림진을 방문하였다. 수현, 유림진 초청으로 11일에는 隨州市 熱山(수이조우시 열산)에서 국가급(AAAA급) 행사로 거행되는 염제신농대전(염황제 제사)에 귀빈으로 초청받아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다. 염제신농은 중국인들에게는 염황자손이라 할 만큼 신적인 존재이다.



신농대제(神農大帝)로 칭송하며, 황제 휘하의 복희씨, 수인씨 등과 함께 삼황(三皇)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염제신농은 농업의 신으로 따뜻한 불의 기운과 농기구의 발명으로 인류에 공헌한 바가 크다.

수렵 채집에 의존해 살아가던 인류에게 가래와 쟁기 같은 농기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수확한 농작물과 만든 물건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시장을 열어 상업의 기틀을 만들어 주었다.

의학과 차의 시조 신농본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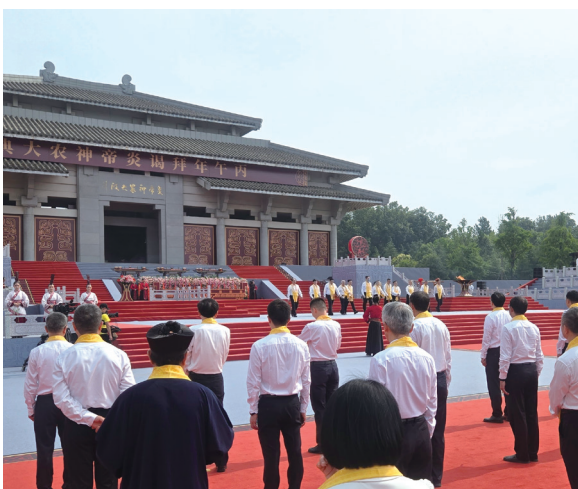
백성들이 독초를 먹고 병들거나 죽는 것을 걱정하여 매일 수십 종의 풀과 약초를 직접 잘게 부수어 먹으며 맛과 효능, 독성 여부를 감별했다고 한다. 70번이 넘게 독에 중독되었다가 우연히 떨어진 찻잎을 먹고 독이 해독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인류 최초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시작되었다. 염제신농은 결국 약초를 시험하던 중 단장초라는 독초를 먹고 안타깝게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염제 신농을 중국인들의 시조이자 농업과 의학의 시조라고 믿으며 추앙하고 있다. 매년 중앙정부에서 부주석이 참석할 정도로 “AAAA”급 규모로 제사 지내고 있다. <이 지면의 사진은 행사와 현지 방문의 다양한 순간을 담고 있다.>



이번 염제 신농대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규모의 문화 행사로, 중앙정부 정협 부주석을 비롯해 호북성 성장, 수주시장 등 국가 및 지방의 주요 지도자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중국 주요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만큼 권위와 상징성을 갖춘 행사로, 명씨대종회가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은 우리 명씨 후손 모두에게 큰 영광과 자긍심을 안겨 줬다.

특히 명씨대종회 명제태 회장은 중국의 주요 귀빈 및 저명인사들과 함께 염제 신농대제에서 헌례를 올렸으며, 생중계 방송과 별도 인터뷰를 통해 한국 명씨의 역사와 위상을 널리 알렸다. 이번 참가는 한·중 명씨 종친 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명씨대종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2. 시조기념관 개관식

6월 12일에는 수현 유림진에서 거행된 명옥진황제(흙문소무황제) 기념관 개관식에 함께했다. 우리 돈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수리하고 단장한 기념관을 돌아보며 뿌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명씨들도 탄생지 기념관과 중경 예릉을 찾아 황손으로서 명씨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 일행을 위하여 산월수인(山月隨人)에서 식사와 숙식, 이동 편의 등을 모두 제공하였다.

〈명씨대종보 편집국〉



명씨대중회 명대산악회

계양산·아차산 둘레길 산행 이어가며 건강과 친목의 시간 가져

일시: 2026년 5월 9일(토) 계양산 정기 산행 · 6월 13일(토) 아차산 산행



명씨대중회 부회장 명영식

명씨대중회 명대산악회는 5월 계양산과 6월 아차산 둘레길에서 정기 산행을 시행하며 종친 간 화합과 건강 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명대산악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정기 산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과 세대를 넘어 종친들이 함께 자연을 걸으며 친목을 다지는 대중회의 대표적인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월 산행은 인천 계양산에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종친들은 산행에 앞서 따뜻한 커피와 다과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화창한 봄날의 계양산을 함께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산행을 마친 뒤에는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이어갔다. 특히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산행에 함께한 명태식 명예회장과 사모가 추어탕을 준비해 참석자들의 건강을 챙겼으며, 명환철 종친은 커피를 후원해 훈훈한 정을 더했다.

이어 6월에는 경기 구리시 아차산 둘레길에서 정기 산행이 열렸다.

파주, 인천, 포천, 수원, 서울, 구리 등 여러 지역에서 참석한 종친들은 아침 일찍 모여 준비한 간식과 따뜻한 커피를 함께 나누는 뒤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다.

푸른 숲길을 따라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어 준비해 온 음식과 다과를 함께 나누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고, 산행 후에는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 산행에서는 명영옥 명진물산 설비사업부 대표와 사모가 김밥과 다과를 비롯해 식사와 음료를 후원하며 참석한 종친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

명대산악회는 산행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종친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며 명씨라는 공동의 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명영식 산악회장은 “명대 산악회는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종친이 함께 참여해 건강과 화합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명씨대중회 명대산악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정기 산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천 시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일정을 이어가며 종친들의 건강과 친목 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명광계, 명씨 최초의 과거급제자 및 임진왜란

이 글은 명씨대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잊혀진 충신, 임진왜란시 평택현감, 명광계」를 읽기 쉽도록 재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명씨대중회 / 대중회자료실 / 명씨조상을 찾아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랑공파 24세손 명 남 재

1. 명승후손, 이국땅에서

명승은 1372년 5월 29일,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 없이, 어머니인 평향후와 함께, 낯선 이국땅, 고려에 이주하게 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국 중경에서 황제로 지내던 몸이, 가족들과 함께 이국땅으로 쫓겨난 것이다. 아버지인 명옥진이 세운 나라, 대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원장에게 나라를 내어주고, 가족들 모두 남경으로 잡혀 온 신분이다. 남경에서의 1년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모든 행동이 주원장의 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원장이 명승을 살려주고 고려로 보낸 것은, 명승 입장에서 새장에 갇혔던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명나라의 주원장이 고려 공민왕에게 보낸 문서에 「不做軍。不做民。間住過活。」쓰여져 있었고, 고려에서도 이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내용은 “군사로 징집하지도 말고, 백성으로 삼지도 말고, 한가롭게 생활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은 이 조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고려에 살면서 군대에 징집되지도 않고, 고려 백성으로 삼지 말고, 한가롭게 생활하게 해달라는 내용만을 보면, 여러분들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 이 조건을 적용해 보고, 조건을 중국 → 미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 미국인이 미국에서 쫓겨났으니, 당연히 미국인의 의무는 사라진다. 한국에서 살지만, 한국인이 아니니 한국인 의무도 없다. 즉, 가장 중요한 국방의 의무와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없는 상태로,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만 내고, 한국인과 잘 지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아주 만족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후손들이 영원히 한국에서, 한국인이 아닌 이방인으로만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대부분은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즉, 나는 불편함이 없지만, 나의 후손들은 한국에 편입되어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2. 서촉명씨(연안명씨) 최초의 과거급제자

명승 후손들이 조선 땅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 관리가 되는 것이다. 정부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급제해야 한다. 하지만 명승 후손들에게는 「불주군, 불주민」이라는 난관이 있어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다. 후손들은 끊임없이 과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소를 한 것으로 보이며, 언제 조정의 승낙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부계기문에 “과거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상소를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명극겸이 진사에 합격하고, 그의 아들인 명광계가 과거에 합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과거시험의 최초 급제자는 명광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계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溪記聞〉 夏主之後。陳願赴試。朝廷許之。明克謙中進士。其子光啓。以文科顯。明氏至今不絕。

명광계가 1573년 소과인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후 3년을 공부하여 대과 시험인 초시, 복시를 거쳐 급제가 확정된 상태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급제자 등수를 결정하는 정시만 남은 상태이다. 정시는 임금 앞에서 시험을 보는 제도이며, 정시당일, 급제자들이 시험장에 모두 모여, 긴장을 풀고 있었다. 이때 태촌 고상안(泰村 高尚顔)이 명광계에게 다가와 말을 건넨다. 고상안은 명광계가 명승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때 두 사람이 나누었던 내용이, 고상안이 쓴 효빈잡기에 나온다.

명사문(明斯文)은 자(字)가 치회(稚晦)이고, 이름은 광계(光啓)이다. 그는 옥진(玉珍)의 후예이다. 나와 함께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에 모두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정시(庭試) 날에 내가 치회에게 말하였다.

고상안 : 주서(周書), 다사편(多士篇)의 장구(章句) 가운데 그대와 은근히 들어맞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알겠습니까?

명광계 : 어떤 말입니까?

고상안 : 망국의 말엽에 남은 후예로부터, 다시 집안을 일으키는 시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명광계 : 옳은 말입니다.

3. 조헌전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와 기록

명광계에 대한 내용이 조헌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조헌전서는 「중봉집 번역발간추진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발간한 책자이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수록된 내용은 조헌전서 내용과 동일하다.

“명광계가 1576년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벼슬을 지내다가 1592년 평택 현감으로 부임하였다. 부임하던 해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였으며, 평택 현감은 정예병 수백 인을 거느리고 출전하였으며, 조헌(趙憲)등이 이끄는 의병과 합세하여 청주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이어 금산(錦山)에서 역전하다가 조헌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부인 현씨(玄氏)도 주위 사람들이 피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성을 내고 말하기를 <신하는 임금을 위하여 죽고 부인은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이 직분이거늘 어찌 피신하랴.>하고 역시 집을 나와 용전하다가 순절하였다. 뒤에 선조는 이를 가상히 여겨 그의 자손을 등용하라는 명을 내렸다.”

4. 일성록과 족보 기록

1830년 3월 9일, 일성록에는 영변의 명천목이 상소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영변에 있는 명승의 사우를 새로 건립하고 제수를 다시 지급하고, 명광계의 혼로와 충절을 고려하여 정려하고 증직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조정은 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승의 사우를 개수하고 제수를 지급하는 것은 자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명광계의 혼로와 충절에 대한 정려와 증직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금의 은혜를 직접 구하는 청원이니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족보에 기록된 명광계의 행적을 살펴본다.

“선조 임진 1592년 평택현감(平澤縣監) 起義旅與重峯趙憲先生時立瑾于錦山, 숙인의창현씨(淑人義昌玄氏) : 남편을 따라 순절하였다”

이 문장은 “명광계는 평택현감으로 있을 때, 조헌 선생의 의병과 함께하였다, 금산에서 진을 치고 맞서 싸웠다” 이런 의미이다.

5. 명광계의 비석내용

묘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공은 황조를 위해 적을 꾸짖다가 죽었다. 200년이 지난 뒤 해외에서 절개를 지킨 선비가 나와 천하에 이름을 남겼다. 태조의 영창릉은 촉강수 위에 있으나, 공은 그곳에 묻히지 못하고 이 역만리에 뼈를 묻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쓴다. 하태조의 증손으로 유명한 충신 명공 아무개의 무덤”이라고 쓰여 있다. 비문 내용을 모두 기록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Homepage 전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란다.

6. 금산 칠백의총을 금산의총으로?

임진왜란 당시 명광계의 행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 기록은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런 혼란속에서 평택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현령이 한 행동은 정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명광계는 왜구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다 죽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행동은 국가로부터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명광계의 이런 행동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금산 칠백의총을 금산의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고, 조헌전서에 수록된 명광계도 금산의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칠백의총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조헌선생과 영규대사가 이끌던 의병, 700명이 연건평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였다. 전투가 끝나고, 왜적이 물러간 뒤 4일이 지나서, 조헌의 제자인 박정량, 전승업 등이 시신을 수습하여 하나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칠백의총이라 불렀다.

금산을 지키기 위해 6번의 전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목숨이 사라져 갔다. 이분들의 영혼들을 어루만지기 위해 금산의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명광계라는 이름이 금산의총에 등재되는 그날을 기다려본다.

(존칭을 생략한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륜회, 국화도 야유회로 화합과 친목 다져

1박 2일 국화도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종친 간 우애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

일시 | 2026년 5월 29일(금)~30일(토) / 1박 2일

장소 | 경기 화성시 국화도

명륜회는 2026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화성시 국화도에서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명제일 명륜 회장을 비롯해 명광길 전 회장, 명순식 자문위원장, 명영철 사무총장, 명현식 부회장 등 18명의 종친이 참석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국화도에 거주하는 명광길 전 회장 내외의 따뜻한 환영 속에 일정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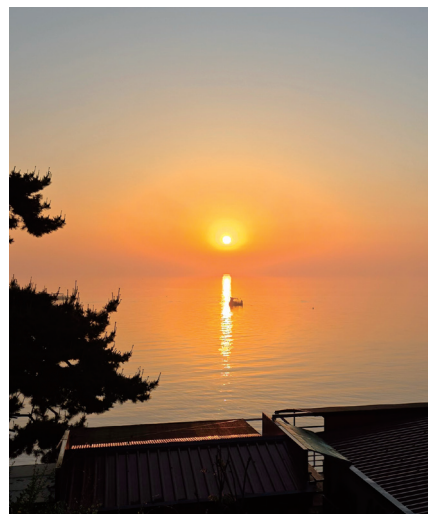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함께 생선회 만찬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고, 국화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산책하며 정겨운 담소를 이어갔다. 이어 명광길 전 회장 자택을 방문해 직접 준비한 식혜와 다과를 나누며 국화도에서의 삶과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숙소에서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함께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혈족의 정을 나누었다.

둘째 날에는 해돋이를 감상하고 토끼섬에서 바지락 채취 체험을 하며 국화도의 자연을 만끽했고, 명광길 전 회장이 정성껏 준비한 바지락 칼국수를 함께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배편으로 국화도를 떠나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준 명광길 전 회장 내외의 따뜻한 환대는 참석한 종친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또한 명찬식, 명화진, 명제일, 명해관, 명효남, 명홍식 종친과 명현식(청양) 종친이 보내준 찬조는 야유회를 더욱 풍성하고 뜻깊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함께해 준 모든 종친의 정성과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종친 간의 화합과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야유회에는 여러 종친들의 찬조와 협조가 더해져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걷고 식사를 나누며 명씨 종친으로서의 화합과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을 통해 종친 간의 우애를 이어가고, 명씨대중회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으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독립유공자 명의호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

2019년 대통령 표창 수훈·국가유공자 서훈
유족 명순자 여사,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참석



사와 광복회 충남도지부가 공동 개최한 백범 김구 선생 제77기 추모 다례재에도 참석해 선열의 독립 정신과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독립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 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명형순 기고 26.06.25〉

청양명씨종친회, 현모재 시설 개선 잇따라

컨테이너 기증과 수로관 개설·환경정비로 제복 보관 및 수해 예방 기반 마련



현모재(청양명씨 종친회)에 제복과 각종 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새롭게 마련됐다.

청양에 거주하는 원로 명제근의 자명주호(25세손) 극동상사 대표가 2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기증해 50여 벌의 제복과 각종 기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또한 매년 장마와 홍수로 발생하던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돈곤 청양군수에게 건의해 사업비 5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청양에서 사업을 하는 명재항(24세손) 명건설 대표가 수로관 개설과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해 현모재 환경이 더욱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비됐다.〈청양종친회 기고26.07.06〉

2026년도 정기총회 찬조내역

(단위: 원)

중친 여러분의 성원과 찬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소중히 새기겠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도 제48차 정기총회 찬조 내역을 종합한 자료입니다

성명_소속	금액 및 현물	성명_소속	금액 및 현물	성명_소속	금액 및 현물	중친회	금 액
명제태 (대중회 회장)	수건셋트 (220) 브러쉬셋트(260개)	명병산(금산회장)	100,000	명노현(북부 이사)	100,000	창원 중친회	500,000
명태식(전임회장)	300,000	명노영(고흥)	200,000	명노영(청양회장)	100,000	서천 중친회	300,000
명영재(고흥)	1,000,000	명기주(창원회장)	100,000	명광호(부산)	100,000	금산 중친회	500,000
명노형(북부)	100,000	명하식(모친 양해남 현식,화순)	100,000	명용표	100,000	보령 중친회	200,000
명영옥(구리)	200,000	명영수(감사)	200,000	명제걸	100,000	청양 중친회	300,000
명현식(부회장_이사)	100,000	명정식(청양 운곡)	100,000	명상국	100,000	서울경기 중친회	300,000
명노운(청양)	100,000	명재인(청양)	100,000	명제형	100,000	명륜회	300,000
명성섭	100,000	명치호(청양)	100,000	명재신(쑤썸저자)	100,000	수원중친회	300,000
명해관(수원)	100,000	명함식(청양)	50,000	명재필(수원)	100,000	합계	2,700,000
명안창(인천)	100,000	명제호(청양)	100,000	명수	50,000		
명제협(청양)	100,000	명제성(청양)	100,000	명순식(자문위원장)	300,000		
명민식, 서준 (경기북부)	100,000	명노섭(청양)	100,000	명화식(수원)	100,000		
명효남(이사)	650,000	명영준(태흥산업기전)	300,000	명홍석(강서)	100,000		
명노석(부회장)	650,000	명노건(청양)	100,000	명환철(인천)	100,000		
명성순(수원)	200,000	명숙희(명재문매제)	100,000	명영식(부회장)	200,000		
명노갑(사당동)	200,000	명형순(청양)	100,000	합계	7,800,000		

특별찬조 내역

- 명홍식 이사
: 파주사당 담장공사 250만원 상당
- 명화진, 명남식, 명노호, 명제협, 명현식,
명노운, 명영식, 명영철, 명재원
: 황제탕 준비

제48차 정기총회를 위해 보내주신
중친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지역 중친회 소식 수원지역중친회, 화합과 친목의 시간 가져

일시 : 2026년 6월 27일(토) / 장소 : 수원시 파장동 백세삼계탕 본점



수원지역중친회는 2026년 6월 27일 수원시 파장동 소재 백세삼계탕 본점에서 중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친목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중친들은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함께하고 반가운 담소를 이어갔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중친들은 따뜻한 중친의 정을 나누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만남은 중친 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고, 화합과 소통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수원지역중친회〉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태흥산업기전(주) ■ 태흥기전: 명영준(25세손)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전문 제작용체

30여년간 전통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부한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taeheungsanup.co.kr

수, 배전반 Moter제어반 중앙감시제어반
계장제어반 분전반 충전기 집합 계량기함



고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저압배전반



분전반반

종친 애,경사 및 동향

부음 2026. 05. 26 명태식님의 장인
김성진님 별세

혼사 2026. 05. 16 명제석님의 차남
명관호 결혼

明氏大宗會

명씨대중보 문의 및 구독신청

- ▶ 명씨대중보 발행인
명제태 회장 010-2399-6233
이메일 jayatool521@naver.com
- ▶ 명씨대중보 편집국장
명영식 부회장 010-6233-8204
이메일 mys3540@hanmail.net
- ▶ 명씨대중보 편집인
명영철 사무국장 010-8551-6936
이메일 my1857@naver.com

명씨대중회 종친 회비 및 후원계좌 안내

명씨대중회 발전을 위해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후원 계좌입니다
국민 392801-04-176571
명씨대중회

본 면은 광고란입니다.
광고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무국장 010-8551-6936

명씨대중보 기사투고 및 광고안내

- ▶ 명씨대중보는 3개월에 1번씩, 연간 4회 발행되는 우리 명씨의 신문입니다.
기사 및 사진 투고는 연중무휴 가능하오니, 종친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 ▶ 주소가 변경된 종친께서는 대중보 발송을 위해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도 가능합니다.(010-8551-6936)

(주) 비경

페인트, 방수 시공 전문 업체

경기도 의왕시
1위 업체



福 을 칠해 드립니다.



■ (주)비경 : 대표 명노성(23세손) 010-3799-5700

- 빌딩 / 상가 / APT
- 병원, 주차장, 옥상
- 방수 및 단열 공사
- 시공 전문 업체



Tel. 031-462-5507

FAX. 031-462-5508

Email. bkc9704@naver.com



상업, 주거시설
내·외부 도장 공사



조형물 등
특수 도장 공사



옥상, 주차장바닥
방수 및 에폭시 공사



우레탄 단열공사
내화, 흡음 뽐칠 공사



주차장, 도로, 공원
차선 도색공사

정담의전

■ 정담의전: 명재익(24세손) 010-9922-0042

장례서비스, 전액 100% 환불제
믿을 수 있는 정담의전이 함께합니다.

명씨대중회와 협약된 정담의전은 거품 없는 합리적 가격과
품격 있는 장례 토탈 서비스를 전액 환불제로 제공합니다.

상품가격 330만원



상담 전화

장례 절차와 상품 예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1644-1350



임종 전화

임종 접수 및 신속한 대응으로
유가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1588-4844

모든 장례는 3일 기준으로 합니다 | 서비스 지역 : 전국구 (도서, 섬지역 불가) | 명씨대중회와 장례서비스 제휴업체 정담의전